

続 孝 行 篇

孫順 家貧 孫順 家貧 與其妻 傭作人家以養母 有兒每奪母食 順 謂妻曰、兒奪母食 兒 可得 母難再求 乃負兒往歸醉山北郊外 欲埋掘地 忽有甚奇石鍾、驚怪試撞之 舂容可愛。妻曰、得此奇物 殆兒之福 埋之不可。順 以爲然 將兒與鍾還家 懸於梁撞之。王 聞鍾聲 清遠異常 而覈聞其實 曰昔 郭巨埋子 天賜金釜 今孫順 埋兒 地出石鍾 前後符同 賜家一區 歲給米五十石。

⇒ 손순(孫順)이 집이 가난하여 그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그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가 잡수시는 것을 뺏어 먹는지라 손순이 아내에게, “아이가 어머니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할 수가 없소”라고 말했다. 이이를 업고 취산 북쪽 교외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홀연히 매우 기이한 석종(石鍾)이 나왔다. 놀랍고 이상해서 시험삼아 그 종을 쳐 보니 그 소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아내가 말했다.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얻는 것은 아이의 복이니 아이를 묻어서는 안 됩니다.” 순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이와 돌종을 집으로 가져와 돌종을 대들보에 달고 올려보았다. 임금이 맑고 멀리 들리고 신기한 종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실을 조사해서 아시고는 말하기를, “옛날에 곽거(郭巨)가 아들을 땅에 묻자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내리셨는데 이제 손순이 아들을 묻으려 할 때엔 땅에서 석종이 나왔으니 앞뒤가 서로 꼭 맞는구나” 하고 그들에게 집 한 채와 해마다 쌀 오십 석(石)을 주었다.

⇒孫順が家が貧しくてその妻と一緒に他人の家の手伝いをしてそのお母さんを奉養した。ところで彼らに子供がいていつもお母さんが召し上がることを奪って食べるから孫順が妻に、“子供がお母さんが召し上がることを奪ったら子供はまた得ることができるがお母さんはまた手に入れる事がないです。”と言った。子供を負んぶして酔山北の郊外に行つて埋めようと地をほつたら忽然と非常に奇妙な石鍾が出た。驚くべきで変で試しにその鐘を叩いて見たらその音が美しくてかわいらしかった。妻が言った。“こんなに不思議な品物を得ることは子供の福だから子供を埋めてはいけません。”順がそうだと思つて子供と石鍾を家に持って来て大梁につけて鳴らして見た。王様が清くて遠く聞こえてくる不思議な鐘の音を聞いてその事実を調査して事実を知つた後言うのに、“昔に郭巨が息子を地に埋めると空が金で作つた釜をくれたが今は孫順が息子を埋めようと思ふ時には地で石鍾が出たから前後がお互いにぴったりと当たるね”として彼らに家一軒と毎年米五十石を与えた。

尙德 值年荒癘疫 父母飢病濱死 尙德 日夜不解衣 安慰。無以爲養 則割腓肉食之 母發癰症 吮之即癒。王 嘉之 賜賚甚厚 命旌其門 立石紀事。

⇒상덕(尙德)은 흉년이 들고 염병이 창궐하는 해를 만나 그의 부모가 굶주리고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자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편안히 해주고 위로해 드렸다. 또한 봉양할 것이 없으면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잡숫게 하고, 어머니가 종기가 났을 때는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어여삐 여겨 재물을 후하게 내리셨으며 그 집 문앞에 정문(旌門)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비석을 세워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尚徳は凶年が入って染病が流布する年を迎えて彼の親が飢えて病気になってほとんど死ぬようになると日夜で服を脱がないで真心でつくして楽にしてあげて慰めて上げた。また奉養することがなければ自分の太股肉を切って召し上げるようにして、お母さんにお出来が出た時は口で吸って優治るようにした。王様がこの言葉を聞いてかわいらしく思って財物を手厚く下ったしその家門前に旌門を建てることを言い付けて碑石を建ててこの事実を記録するようにした。

都氏家貧至孝。賣炭買肉 無闕母饌。一日 於市 晚而忙歸 鳶忽攫肉 都悲號至家 鳶既投肉於庭。一日 母病 索非時之紅柿 都彷徨柿林 不覺日昏 有虎屢遮前路 以示乘意。都乘至百餘里山村 訪人家投宿 俄而主人 饋祭飯而有紅柿。都喜問柿之來歷 且述己意 答曰、亡父嗜柿故 每秋擇柿二百個 藏諸窟中而至此五月 則完者不過七八。今得五十個完者故 心異之 是天感君孝 遺以二十顆 虎尙俟伏。乘至家 曉鷄喔喔。後 母以天命 終 都氏血淚。

⇒도(都)씨는 집은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했다. 숲을 팔아 고기를 사다가 어머니 반찬에 빠뜨리지 않았다. 어느 날 장에서 늦게 급히 돌아오는데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채갔다. 도씨가 슬피 울며 집에 와보니 솔개가 이미 집 뜰에 던져 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환이 들어 때아닌 홍시를 찾으셨다. 도씨는 감나무 숲을 헤매며 날이 저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호랑이가 앞길을 가로막고 올라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도씨는 호랑이를 타고 백여 리나 되는 산촌에 이르러서 그날 밤을 지내려고 인가를 찾아 투숙했다. 얼마 안 되어 주인이 제삿밥을 차려 주는데 홍시가 있었다. 도씨는 기쁜 마음으로 감의 내력을 묻고 다시 자기의 뜻을 말하였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감을 좋아했으므로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감 이백 개를 골라내어 굴 안에 간직해 두는데, 오월이 되면 상하지 않고 완전한 것이 칠팔 개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십 개의 완전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상히 여겼더니 이것은 곧 하늘이 그대의 효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며 스무 개의 감을 내주었다. 도씨가 감사하면서 문밖에 나오니 호랑이는 아직도 누워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오니 새벽 닭이 소리를 내어 울었다. 후에 어머니가 천명이 다 되어 세상을 떠나자 도씨는 피눈물을 흘렸다.

⇒都さんは家は貧しかったが孝誠が至極だった。炭を売って肉を買ってお母さんのおかずを疎かにしなかった。ある日、市場より遅く急に帰って来るときに鳶が急に肉をひったくった。都さんが悲しく泣いて家に来て見たら鳶がもう家庭に投げておいた。ある日はお母さんが病気になって時ならぬ熟柿を捜した。都さんは柿の木を森を迷って日が暮れることを悟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虎が道を塞いで乗りなさいという振りをした。都さんは虎に乗って百余りの里もなる山村に至ってその晩を過ごそうと人家を尋ねて泊まった。いくばくもなく主人が祭祀ご飯を調べてくれる時に熟柿があった。都さんは嬉しい心で柿の訳を聞いてまた自分の意を言ったら主人が言うのに亡くなったお父さんが柿が好きだったので毎年秋になれば柿二百個を選び出して穴の中におさめておくので五月になればいたまないで完全なのが7・8個に過ぎなかった。ところで今度は五十個の完全なことを得たから内心可笑しく思ったらこれはすなわち空が君の孝に感動したことだと言って二十の柿を渡してくれた。都さんが感謝しながら門の外に出たら虎はまだ横になって彼を待っていた。虎に乗って家へ来たら夜明けにニワトリが音を出して鳴いた。後にお母さんが天命になって

古書との出会い 続孝行篇

世を去ると都さんは血の涙を流した。